

교회소식

1.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복음서 성경통독을 함으로 예수님의 공생애에 동참하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사순절 절기설교 중

1)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맨 나중에 생각하셨다.

예수님은 남을 위해 살았고 남을 위해 기도하셨고 최후의 한마디는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남을 위해 자기 일을 끝까지 하셨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시키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시므로 더 이상 몸으로 일할 수 없게 되셨을 때도 기도로서 최후의 봉사를 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과 처절한 순간에도 원수를 먼저 생각하셨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임할 심판을 염려하셨다. 예수님은 최후의 순간에 와서야 비로소 자기를 생각하고 있었다. 참으로 주님은 살아서도 모범을 보이셨고 죽는 최후의 순간까지 모범을 보이셨다. (사계절 묵회설교에서)

3. 예배 후 **공동체 인도자 성경공부**가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인도자 부재중시 공동체장 참석 바랍니다.

4. 다음 주일예배후 **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 각 공동체는 준비 바랍니다.

5. 원처치에 **청빙담당목사 광고**가 올라 있습니다. 좋은 성도로 좋은 목사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6. 2025년 3월말까지 정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만들 것이니 영문이름 작성바랍니다. 용지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시간

주일예배 오후 1:00
(본당)
청년부 오후 1:00
(코트야드룸)
중고등부 오후 1:00
(코트야드룸)
유아동부 오후 1:00
(라운지룸)

수요일예배 오후 7:30
(본당)

예배봉사자

예배안내 : 김명춘
새신자안내 : 이기중
주차안내 : 민광호
주방봉사 :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 박혜정

온라인 현금 안내

예금주 : calvary Church
은행계좌 : ASB BANK
12-3042-0352091-00



2025년 3월 9일 (통권 26권 10호)

교회 설립 1999년 7월 18일

해외한인 장로회
뉴질랜드

갈보리교회

Calvary Church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

다시 참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로마서 12:1-2)



130 Remuera Road, Remuera, Auckland

021 109 9757 // pbm@calvary.org.nz

www.calvary.org.nz // www.youtube.com/@calvaryorgnz

주일에배 순서 인도 : 박병민 장로

찬양	주일 찬양팀
예배로의 부름	히브리서 4장 15-16절
찬송*	29장 / 다함께
참회의 기도*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함께
찬송	303장/ 다함께
대표기도	김병진 목사
성경봉독	에베소서 2:4-7
찬양대 찬양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설교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 나명균 목사
찬송	321장 / 다함께
봉헌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공동성경읽기*	에베소서 2:7 / 다함께
응답송*	감사 위에 감사 / 다함께
축도*	나명균 목사

*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공동성경읽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에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에베소서 2:7)

대표기도 순서

3월 9일 김병진 목사
3월 16일 박병민 장로
3월 23일 김창조 집사
3월 30일 고석승 집사

수요일예배 순서 (3월 12일)

찬양/기도	한의도 전도사
대표기도	서영애 집사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엡2:4-10) 한의도 전도사
찬양/기도	다함께
주기도	다함께

*3월12일 기도: 서영애 집사
*3월19일 기도: 김은희 집사
*3월26일 기도: 이해경 권사
*4월02일 기도: 이옥화 집사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설교요약 // 하나님의 긍휼로(에베소서2:1-7)

본문에 나오는 ‘**긍휼, 사랑, 은혜, 자비**’ 등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잘 표현해 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위대한 단어 중 딱 한 가지, <**하나님의 풍성한신 긍휼**>만 상고해 봅니다.(엡2:4)

‘**긍휼**’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동기라면,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과 우리가 진토임을 너무나 잘 아시고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우리는 멸망뿐임을 선포했습니다.(렘13:14) 예수님은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시며(히4:!5),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마9:36, 마14:14)

우리는 귀중한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계속해서 긍휼함을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사27:11) 즉,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신 긍휼을 얻기 위하여 세리처럼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눅18:13) ‘주님! 나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위대함을 체험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축복으로 우리 갈보리교회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더해지면, 성도들의 삶에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는 복된 삶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기도제목

- 1. 성령님의 능력안에 담임목사 청빙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 2. 사순절 기간에 회개와 절제와 나눔의 실천을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 3. 사순절 기간동안 성경읽기를 통해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성숙해 질 수 있도록
- 4.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달하는 선교사들이 강건하여 성령의 지혜로 사역하도록